濟大新報
編輯兼發行人 金繼源
主幹 姜遇乘
編輯局長 李東植
發行所 濟大新報社
濟州市龍潭洞五一八
電話438.439
印刷·韓一印刷社
濟州市三徒一洞931
TEL:931

第16回 學生의날 紀念式

참신한 민족정기 받들어 새역사의창조에선봉이

국가 발전을 향한 범국민적 단결에 호소

제16회 학생의 날을 맞는 記念式이 오전10시부터 市內 시민회관에서 갖었다.

一九二九年 한국학생들의 모여 학생의 새 결의문채택, 김길(國·三)군의 序詩 낭독에 이어 학장의 념사를 통해 제주도지사와 夫교육감은 각각 격려사를 통해 이와같이 양하고 모름지기 진리의 탐구와 인격도야에 정진하며 새역사의 창조에 선봉이 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담화문

時代的使命완수해야

抗爭,對決精神을生産,協同精神으로

이것은 학생생활의 자세를 우리민족 수난기의 독립을 생취하기 위한 「항쟁과 대결정신」으로부터 「생산과 협동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우리 학생들은 이 나라의 앞날을 담당 해야할 국가의 대동령 박정희

친애하는 청소년 학도여러분!

오늘 제一六회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나는 먼저 온 국민과 더불어지난날 민족 저항기에 애국、애족의 깃발을 높이 쳐들었던 청소년 학도들의 숭고한 구국정신을 높이 치하하고 그들이 보인 불타는 애국정신을 오늘에 살려、당면한 조국근대화의 과업 완수에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하게 될것을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三九년전、일본제국주의가 우리 한민족을 말살하려 하던때、광주학생들을 비롯한 전국 방방곡곡의 젊은이들은 침략과 예속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민족의 생존권을 주장했고 자주독립의 민족적 염원을 세계 만방에 철명함으로서 조국광복에 역사적인 새 개기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국가 발전의 영예로운 약진기(躍進期)에 살고 있는 한편、이 큰 과업을 이룩하기 위해서 안팎으로부터 온갖 도전을 극복해야 하는 보람찬 시련기에 학생시절을 보내고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밖으로는공산침략을 막아 국토를 수호해야 할 신성한 책임과 안으로는 경제개발 계획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다음 새대의 일꾼」으로서 공부에 열중해야 할 무거운짐이 우리학생들의 양 어깨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일초롤 아껴 공부에 힘쓰고 건전한 지성을 함양하며 생산적인 국민이 되도록 모든학생들은 노력해야 하겠읍니다。

우리의 국민교육은 전전하고도 애국적인 국민이되는 인간교육에 더욱 힘쓰고 당면한 조국근대화의목표를 위하여 급속도로 진전되는 현대 산업사회에적응할 수 있는 기술교육에 더욱 힘써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개발경쟁의 시대에 살고있으며과학기술이 국력의 우열을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학생의 신분이란 세계각국의 학생들과 자기 조국의 운명을 걸고 「교실에 있어서의 경쟁」에 나선선수들입니다。

이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지 못하면 경제개발도、공업화도、국토통일도、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뒤처지고 마는것입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이 三九년전에 학다음 한 뜻으로 뭉쳤던 전통을 살려오늘날 다시 민족중흥을 위한 시대적 사명을 훌륭히 완수해서、다음 세대에 새로운 「학생의 날」로 그 뜻을 첨가해 주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민족의 수난기에 민족의 선두에서침략세력과 항쟁하던 애국학생들의 거룩한 뜻을 거듭 찬양하고、청소년 학도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一九六八年十一月三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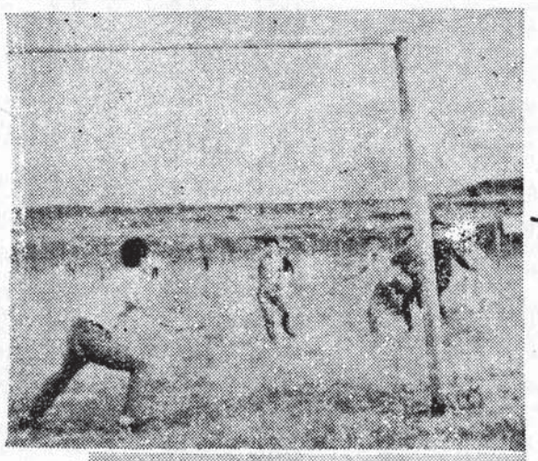
대통령 박정희

法文學部축구大會

상학과우승·준우승은 法學會에서

학생의 날 記念行事의 일환으로 法文學部 學生會 주최 각학과대항 축구대회가 本大學 운동장에서 四ㄱ五일양일간에 걸쳐 베풀어졌다。시원한 바다를배경으로 열전을 벌린이 날 축구대회에서는 상학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法學會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우천관계로 연기된 경기는 슈조등게 끝마쳤는데 패배를맛본 학회에서는 다소흥분。



사진·上……商學會와 法學會의 축구경기장면 下……体育담당 敎授로부터 심판요령을 듣고있다。

축산학회서 畜産 濟州를 다짐

四回·畜産의 날

제四회 畜産의 날을 맞는 記念式이 지난2일 오전10時서 부터서 귀농학부 강당에서 베풀어졌다。道內각기관 장및 양축가、학생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가졌었는데축산학회장 현영선(三年)군은 개회사에 앞서 本道축산업 개발에 앞장서 주신 농학부 강당교수 및 학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다짐했는데 간단한 記念式에 이어동 학회가 특별 초청한강사 오봉국(서울 대학교 농과대학 교수)농학박사의 「오스트렐리아의 畜産、」김동암(난다음 간소한 간담회 제주시험장 연구관)선생의 「뉴질랜드의 초畜제주를 언금하고 좀 더 축산제주의 발전의 기약을 다짐했다。

장서자고

法文學部 學生會서 學生研究發表會 盛況

학생의 날 기념행사로

제16회 학생의날을 맞는 學生會에서는 市內원앙새다방에서 研究發表會를 가짐으로해서 학생의날을 더욱 뜻깊게했다。

法文學部학생회장 김영준(상·三)군은 이날 행사를 마련하면서 제16회 학생의날을 맞는 의미에서 학생들의 좀 더 새로운 각오와 향토개발에 육성코저하는 의도에서 새 엘리트의 자세가 필요해진 실정임을 밝히고 학구적생활태도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홍성화(국·3)군의 사회로 「생산직장의 학생과 론제를 보면강광주학생의거와 오늘날의 학생동태」강옹삼(상·3)군의 「상업과 제주도」부태림(국·3)군의 「제주도 언어고찰」김용기(영·3)의 「관광제주와영어의 위치」현명순(가정·3)양의 「여대생으로서의 사회참여」라는 론제들을 가지고 각기 전공분야에서研究한 學論文들을 발표했다。

勝共敎育에 참가

중앙정보가 주최한승공 교육에 참가키위해 총학생회 간부및 지원자 약30여명은 12일오후 5시 선박으로 제주를 떠났다。이날 떠난 30여명은 14일오전에 충남·전남지구의 대학생들과 합류 일행은 중앙정보부 학교에서 교사가 끝나면서 겨울방학으로 돌어갈 예정인것 같다는소식이다。

本大學 体育의 개가

道民綜合体育大會서 축구 야구 우승, 태권부에서 金메달

한강수총학생회장이월남 위문차 7일 제주시를 떠났다。12月말일에 돌아올예정으로 떠난 한강수총학생회장은 이번 월남방문을 계기로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고월남에있는 우리 국군용사들을 위문하고 본대학의 PR도 넓히겠다고 담소했는데 잠시 서울에 머물면서 여러대학교의 위문단과 합세할 예정이다。

韓康洙 총학생회장 월남 위문차 離校

國民은행에 梁영호君合格

지난달 서울에서 실시한 국민은행원 채용시험에 梁영호(상·四)군의 합격했다。梁君은 내년 졸업예정자로서 상학과에서 수석을 차지하는 모범적인 학생이다。

高大 모의국회서 金君 受賞

지난八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모의국회에참가한 金성수、김두전(法·二)兩君이 우수한성적을올리고 돌아왔다。

이날 모의국회에는전국대학생들이 참가했는데 「농림정책시정안」에 대한 토론을 벌린 끝에 김성수군은 질의부문에서 질의의장賞을 그리고 김두전군은 내각 토론부문에서 우수상을 획득했다。

학기말 고사 12月 9日부터 一九六八학년도 二학기말고사가 來月 九일 부터 일주일간실시한다고학교당국측이 말이다。

그런데이 번학기말 고사가 끝나면서 겨울방학으로 돌어갈 예정인것 같다는소식이다。

記者席

■…지난24日 家政科生들이 ××대와의 다방에서 미팅이 있었던 모양인데 졸업기분에 마지막으로 미팅도 좋지만 하필이면 상대가 그쪽이었을까? 그네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지는 不問하고래도 그러고도 知性人이라자처할 테니 完全한가치전도요 評價切下라고나 할까?

■…大學生들에게도 이월부·V라는게 있는가 보죠。^월부·V하면 참 편리한 상업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본다。움주파티에 구겨진 文大生의 이메지를어디서 보상 받을수있세상도 부세상이 될것만같이 주지 말것을 주었다 고 한탄비슷하게 내쏟다。그분들의 그러한 소리도 다소수긍이 가지만 도대체 기에 대학생들의 월부책들을 덕덕 사내는 것인가。아무려나 책을 가지고싶은 것도 흥미있긴 한일인상 실기도 한데! 여러달 밀리는월부값을 피할려고 애쓰는 모양이과히볼품이라。월부는 아니지요 네? 그렇읍니다만 공짜 같아 뵈긴 합디다。

구겨진 女大生의 이미지 월부 책값 좀 물라구

■…이제겨울의 문턱에 들어섰다。한라산에 하얗게쌓인눈을볼 수있고이 미쳣싸래기눈을 맛보았다。올 겨울은예년보다 빨리 찾아왔다고 한다。확실히 빨리 온셈이지만진짜 겨울맛을 보기엔 좀더 있어야 하리라。이젠 나뭇기지에 잎파리를 볼수가 없다。간혹 하나 둘 위태롭게 메달려 있을 뿐인데 그것은나무 잎파리가 아니라 차라리 무슨 휴지가 걸려있는 것같다。

이제 가을도 갔고 겨울의 문턱에서서대학의 주위는 다소살벌한 분위기로 기득해진다。모든것은끝나가야하는 달밋이남아있어 그것을 고역의달(?)이라고 학생들은 생각해낸다。고역이라해야 남아있는 과업이란 별것 아닌것。

그것밋이 김새게남아 있을 뿐이다。시험을 싫어하는 습관을 우리들은 언제부터 배워왔을까? 태어날때부터 죽을때까지 시험으로 끝나는 것인가。가장 심각한 것인것을……

성경에^우리를 시험에 들지말게하옵시고、V 어림도 없다。정나미가 떨어지는 소리랑 하질 말아라。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課題는 소실하게 해치워야 하리라。시험이 무서울것은 하나 없고 다만 우리는공부하는 대학생이면된다。

교수는 硏究하는교수면 된단이다。

시험이고 뭐고간에 신경을니 무 쓸필요는 없다。그따위것에 과대망상 이라고하나? 아니 노이로제(?) 멍청한 말씀들이다。박카스·드링크라고 해라。아니면^베스타나볼V정도、정말 시시한 소리로 생각해 버릴 시원 하다。

問題는 오늘을 어떻게 忠實하느냐 하는 것이다。^용V

佛敎學生會서 佛敎교양강연

14일 불교학생회(회장·고진수)에서는중앙포교당에서 法會를 가졌다。

무진장스님을 초청코 불교교양강연을 결드려 가진 이 法會에서는불교학생회원들과 그외에 재학생들이 참석했었다。

本社發令

김병택 교정삼 任

修習記者

一九六八、十一、一

一九六九년도 제주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一九六九년도 본대학 지원자(남·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1) 모집학과 인원및 시험과목

학부	학과	모집정원	필답고사 필수과목	필답고사 선택과목	면접	비고
법문학부	법학과	남·녀15명	국어、영어、수학(1)국사	일반사회、상업부기、독어、생물중 택일	구술및 신체검사	
	상학과	〃 15 〃	〃 〃 〃			
	국문학과	〃 15 〃	〃 〃 〃			
	영문학과	〃 10 〃	〃 〃 〃			
농학부	농학과	〃 20 〃	국어、영어、수학(1)생물	물리、화학、국사、보통작물、축산、수산통론、가정학、과수 원예중 택일	〃	
	원예학과	〃 15 〃	〃 〃 〃			
	축산학과	〃 20 〃	〃 〃 〃			
	수의학과	〃 20 〃	〃 〃 〃			
	농가정학과	여 15 〃	〃 〃 〃	화학		
	어업학과	남 20 〃	〃 〃 〃	물리		
	식품가공학과	남·녀 20 〃	〃 〃 〃	화학		
	증식학과	〃 20 〃	〃 〃 〃	생물		

(2) 지원자격

1、고등학교 졸업자및 1969년 졸업예정자。

2、문교부 시행 대학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3、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동자격이 인정한자。

단、색맹 생약자는 농학부에 지원할수 없으며 특히 어업학과 지망자는 시력 0。5이하 청력(귀) 폐질、기타 승선에 지장이 있는 자는 타학과에 지원할 수 없다。

(3)제출서류。1、입학원서(본대학 소정용지 1매)

2、호적초본(유효기간 3개월이 지나지 않은것) 1매(합격자에 한함)

3、사진(탈모 상반신 소명함)5매 수험표는 문교부 지시에 따름

(4) 원서발부 一九六九、一、一五ㅣ二、一四(30일간) 본대학 교무과및 농학부(서귀읍)교무과

(5) 원서접수 一九六九、一、二九ㅣ二、一五(一六일간) 본대학 교무과(제주시)

(6) 시험기일 一九六九、二、一九ㅣ二、二五(후기)

(7) 시험장소 본대학 본부 강당

(8) 합격자 발표 一九六九、二、二七 상오 一〇시 본대학 게시판및 제주신문 지상。

(9) 등록금 문교부 지시에 따름

(10) 특 전 1、성적이 우수하고 빈곤한 학생은

① 五、一六장학금 ② 국비대여 장학금 ③ 삼성 장학금 ④ 교내 장학금 ⑤ 원호 장학금 ⑥ 수산 장학금 ⑦ 한라 장학금 ⑧ 동창회 장학금 ⑨ 기타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2、재학중 알·오·티·시 교육을 수료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자는 육군소위에 임관한다。

3、어업학과 재학중엔 알·오·티·시 교육을 수료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자는 해군 소위에 임관한다。

4、어업학과 졸업자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자에 어선 갑종 2등항해사 면허장을 수여 받을수 있음。

5、재학중 교직과정을 이수한자는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11) 기 타 상세한 사항은 본대학 교무과(전화 四三八·四三九)로 문의할것。

濟州大學

一九六八年 月 日

「敎養課程敎育의 强化」

—敎養科目學点을 大幅增加해야한다—

社說

近來 全國의 有數한 大學에서 敎養敎育에 대한 반성과合理的 模索이 일고 있음은 大學의 質的 向上을 爲해 慶賀할 일이다。

解放以後 雨後竹筍처럼 量的팽창을 가져온 우리나라 大學의 發展史는 質的向上의 逆行을 缺如한 절름발이의 歷史이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그러나 갖은 우餘曲折에도 불구하고 連綿히 難關을 打開해서 現今에는 成年 韓國의 大學은 그 형식과 내용이 正軌에 올라섰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것이다。

허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大學은 本然의 大學敎育의 使命을 다하기에는 制度나 내용에 있어서 많은 難題를 품고 있으며 그 制度的 改善策에 對한 合理的 解決方案이 要請되는 엄숙한 時点에 놓여있다。이러한 때에 全國의 各大學에서 大學의 敎養課程 敎育에對한 再評價와 새로운 方向摸索에 關한 反省이 일기 始作한 것은 自然發生的인 것으로 너무나 當然한 일이다。

現下、우리나라大學의 學制는 美國大學의 制度를 따르면서도 日政下의 舊制大學의 制度를完全히 脫皮치못한 어중충한 混合制度의 狀態에 버물러있다。日政下의 舊制大學을 나온상당수의 사람들의 뇌리에는 아직도 그 정신적 경향이 大學은 專門的 知識을 습득하는과정이며 敎養科目은 거치장스러운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는이메지가 가득차있음을 본다。이러한 結果가 根本的으로는 美國式 制度를 적용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日制時代의 敎育내용을 踏襲하면서 형태를 낳은 原因이 되었다고 본다。

現代는 分化의 時代이다。 따라서 分析의 時代에 있어서學問의 性格도 細分되어나아가고 特殊的인 分野에 專門的 知識을 要하는 社會的 狀況에 부응하여 大學이 專攻科目에 역점을 두어야함은 當然하다。

그러나 多樣한 學問은 相互의 有機的 關聯性을 가진 共通的 基盤위에 성립되어있다。그러므로 專門的 知識의 구축은 기초학문의 토대위에서 건축될 수 있는 것이다。 고로 專攻科目의 强調는 敎養科目이 소홀을 뜻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만이 可能하다。 또한 大學敎育의 本來的 使命의 立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大學敎養敎育의 강화는 急先務라고본다。

大學은 專門人을 만들기 전에 먼저 人間을 길러내는 곳이다。 特殊的 人間이기 전에 全人을 만드려는 大學의 使命이다。 우리는 學者이고、軍人이요、會社員이기 전에 먼저 人間이다。 그러므로 專門的 職業人이기 전에 우리는人間으로서 겸비해야 할 品性과 人間性을 가꾸는데 必要한 包括的이요、統一的 知識을 우선적으로 敎育하는데 重点을 두어야한다。 敎養敎育이 가지는 意義는 첫째 全人을 길러내는 데 있으며 다음에는 專攻科目의 기초가 되는 堅實한 토대를 마련함에 있다。

現在 世界各國의 경우를 보드라도 獨逸의 나라가 大學의 敎養學部를 獨立시켜 二年과정을 이수토록 하고있다。

가까운 日本의 경우만 해도 大部分의 大學이 敎養科目의比重을 總學点中 40%내지 15%를 차지하고 있어 專攻科目과 대등한 位置에 두고 있으며 美國의 例를 보면 대개의 大學이 全學点의 50%의 比重을두어 名實相符한 大學本然의 敎育을 移行하고 있다。

韓國의 大學이 敎養敎育의 실태를 살펴보면 몇개의 大學간 敎養科目의 比重이 40%를 차지하고 있을 뿐 多數의 大學에선 대체로 30%의 比重을두고 있어 質的으로나 量的으로敎養敎育이 제대로 실시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現時点에서 서울大學을 비롯한 많은 大學에서 교양교육강화의 一環으로 교양학부를 獨立하여 교양교육의 새轉機를 摸索하려는 노력은 반가운일이 아니할 수 없다。

本大學에서도 이러한 現實的 要請과 必要에 적응하기 爲하여 일찍이 一九六四年度부터 교양학부를 獨立하여 五年이라는 時間이 경과했으나 기실 내용적으로는 이렇다 할 교양교육 강화의 轉機가 마련되지못하고 한채 오늘에 이르는 형편이다。

本大學 교양학부의 경우는大學自体內에서 규정한 형식적獨立으로 制度的 與件이 缺如되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치 못하고 있다。

우선 本大學 교양교육 강화의 急先務는 名實相符한 교양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法制化된 制度上의 獨立을 하는일이다。 學校當局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이 問題를 적극적으로 文敎部에 건의하는 誠意를 보여줘야할 것이며、文敎當局은 형식과 내용이 일치된 교양교육을 爲하여 흔쾌히 協助를 해줘야 當然하다。

다음에 本大學 교양교육의보완책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것은 교양과목학점을 증가시키는 일이다。 現在 本大學의 교양과목학점 배당은 36學点으로 卒業에 필요한 總學点의 약23%에 불과하다。 이것은 大學의 교양교육을 위해서는 통곡할 일로서 교양학점 배당율이 사장 저조한 他大學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드라도 약 七%는 모자란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明年初부터는 本大學도교양학점을 大幅增加하고 最小 40學点以上을 배당토록하여 교양교육에 새轉機를 마련토록 새로운 대책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敎務當局은 교양교육에 각별히 유념하여 現實的 難關을 감수하고 名實相符한 교양교육의 休制確立에 적극성을 보여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濟州大學은

鄕土開發에 어떻게 寄與하는가

學長 金繼鏞

「濟州畜産問題硏究所」는 濟州道의 畜産開發與件이 具備되고 있는 根本的이고 實用的인 畜産問題를 綜合的으로 解決하여 濟州畜産의 方向을提示해 주고 振興시키기 爲하여 濟州大學및 道內硏究機關과 其他 畜産業者와 主畜및 有畜農家등 有能한 畜産人을 養成輩出함으로써 濟州道의 畜産을開發하고 나아가서 輸出畜産業으로 發展시키고 국민소득향상을 期하기 爲해서 설립되었다。그리하여 輸出및 輸出對置畜産物 生産性및 加工에 關한 問題 等 여러가지 연구사업에 對하여 關係分野의 교수들은 연구를 하고있다。

「南方水産生物硏究所」는 한국의 중요한 漁業對象인南方水産生物에 對하여 漁場分布및 海洋條件 等의 水産學術硏究調査와技術開拓으로 수산학부 학생들의 臨海實驗實習을 通하여濟州道의 特異한 環境要因(水溫、浮遊生物、크로시오 暖流의分岐点및 內陸面의 冷地下水)때문에 水産生物이 多棲하므로이의 연구가 養殖、漁撈및 수산가공에 關聯시켜 經濟關發 五個年計劃에 符合토록 하기 위하여 設立되어 여러가지 테마를 가지고 연구 중에 있다。

학생들의 鄕土開發硏究必要

各學會 活動의 영향도 커

敎授硏究造成費가 時急해

이와같이 교수들은 과거에는눈을 멀리 외국에 돌려 전공분야의 심오한 이론을 연구 하였지만 精緻할 외국의 이론을 가지고 눈을 우리의 周圍環境에 本格的으로 돌리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頃向에 絶對的인 轉換点을 劃한 것은 지난 四月 三日 來道하신 朴正熙大統領의 指示였다고 생각된다。即 道政遂行上問題点을 濟州大學에서연구하라는 指示에 따라 本 大學에서는 數一○種의 問題 가운데 一次的으로 十一個種目中 道知事를 비롯하여 有關學者들과 連席會議를 가지고 일곱가지 종목이 選擇되어지금 중앙관계부처에 積極的으로 反映시켜 연구비 확보에 노력하는중이다。그 硏究테마들은 다음과 같다。「濟州道中山間開拓에 따르는 農業經濟圈 形成에 對한 經營診斷에 關한 牧野地改良에 關한 연구」「濟州道 진드기에 關한 연구」「濟州道觀光資源의 조사연구」「飼料資源開發과 効率的인 利用에 關한 연구」그리고 「濟州道에 있어서 전복、소라、닭새우의 增殖을 爲한 種苗生産에 關한試驗」등이다。

그리고 各學科에 있는 學會들의 活動이 또한 향토개발에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点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例를들어 農科에서 全國 農科大學세미나아를 開催하는 것이라든지 各學會議를 通하여 濟州道의問題点에 對한 연구결과를 發表하고있는 것들은 地域社會發展에 寄與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제주대학에 재직중인 교수들의 제주도 문제에 관한 연구사업들이 「道內觀光英文案」內板에 관한 檢討연구」등 許多하나 紙面 關係로 省略하거니와 附言해 둘 것은 이상言及한 연구기관 外에도 家畜病院의 奉仕活動이 눈부시고 附屬圖書館에 마련된 「濟州道름」「제주도향토재료실」과 電話觀覽制를 通한 對社會 奉仕活動等은 鄕土開發에 寄與하는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結言

이상과 같이 濟州大學의 교수나 학생들은 地域社會開發에관하여 意慾을 가지고 있으나일이란 意慾만 가지고서는 안된다。

좋은 일은 經費도 많이 드는 법이다。따라서 향토개발에 對한意慾을 鼓吹시키고 좋은아이디어나 方案을 얻기 위해서는 연구하는 교수들에게 연구조成費가 주어져야 한다。

過去의 예를 보면 在京학자들이 제주도문제에 관한 莫大한 연구비를 타서 來濟하여 갔는데 數十日동안에 얼마나 연구를 할 것인가? 제주대학이設立 되기 前에는 그와같은 方法 외에 별도리가 없었던 것을當然하리라 보아진다。그러나 제주대학이 設立되어 그 동안 長足의 發展을 가져온 現今에는 濟州道問題에 관한연구비를 支給하는 일은 過去처럼生覺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勿論 제주대학 自体로서는 텃취못할 分野가 있다。그러나 제주대학은 形式상 대학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법문학부、농학부、멀지않아 독립될 水産학부가 있으므로 종합대학이나 다름이 없다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이와같은 点으로 미루어봐서 敎授陣도 여러분야에 걸쳐 확보되어 있는 만큼 역시 濟州道問題에 관한 限 연구비는 제주대학교수들에게 주어져야 積極的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드가 造成되어 가야 할것이다。그리고 제주대학교수들이 濟洲道問題를 연구하는데는 우선 實情에 밝고 陸地部에서 연구하러 來濟할 경우의 交通費등 여러가지 費用이 덜 든다는 利点도있는 것이다。

濟州大學은 地方大學으로서地域社會와 密接 不可分의 關係가있다。 濟州大學이 鄕土開發에 寄與하기 위해서는 濟州大學이 發展하여야 하며 濟州大學이 發展하여간다면 鄕土開發에도 그마큼 더 寄與度가 클 것이다。이상과 같이 濟州大學은 여러가지 目的을 誠實하게 遂行하기위하여 硏究하는敎授、工夫하는 大學으로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內部施設 完備와 機構强化等 諸般 問題点解決에 努力하고있는 化際에 道內 有志人士와 各 機關의 聲援은 濟州大學發展에 큰 役割이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自然환경과品種、技術이三位一体

品種導入은 地方風土에 알맞아야

감귤品種改良과 整枝剪定

—감귤재배 기술의 체계화를 위하여—

白子勳

一 序言

우리나라에서 감귤의 경제적 재배의 연륜은 극히 짧지만 금년에 이르러 중요경제성작물로 등장이 되어있고 앞으로도 우리제주도에서는 가장 수익성이높은 유망한 작물이라 생각이 된다。一九六八年度감귤 생산 예정량은 三千屯으로 추정되어 이의 소득은 五억원이 예상된다。이와같이 농가소득에 차지하는 비중과 그중요성에 비추어 본도의 감귤 재배기술은사회적조건에 적응하여 하나의 지역적 기술로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실제 재배면에서 많은애로와 도당국이 추진하고있는 五개년 계획의 추진에 있어 많은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여기에 본도 감귤재배의 기술을 하루속히 이지방의 지역적 기술로 체계화가 되고 보급이 되어야 될것이나 이의실행에는 보다 오랜 세월과 난관이 예상되지만 원래가 농업은 자연환경과 품종、인간의 기술이 결합되어 수확량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三자의 결합은 正三解형을 이루고 이 정삼각형의 면적은 어느 일변만이 길었다고하여 정삼각형의 면적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자연환경을 잘 활용하고 이에 알맞게 품종을 개량하며기술을 신장시킴으로써 수확량이 많아지는 것이다。따라서 이 정삼각형의 면적은 일정한 것이 아니며무한으로 늘어날수도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농업기술은 무한정으로 발선시킬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때는 재배하게된 소、목적을 달할수 없는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정삼각형에 一邊을 더하여 정사각형을 구하고 있는것이오늘날의 농업인 것이다。즉 다수확만이 농업이 아니고 생산물을 돈과 바꾸었을때를 먼저 생각하는것이 농업인고로 감귤재배에서도이를 도외시 할수는 없는것이다。특히 품종관계는생사의 기본조건이며 농업의 기본인 만큼 품종의 기반위에 재배기술이 체계화되고 환경조건을 극복하는데 노력하여야 되는것은 일반농업에서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二 감귤의品種改良

근래 감귤재배에대한 인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감귤묘목의 도내 수요량을 도내산으로는 공급이 어렵고 인근 日本에서 묘목을수입하여 왔으나 묘목 그 자체와 품종의 신빙도가 극히 희박하다。 한 예를 들어 二~三年前 Navel Orange를 日本에서 구입하였는데 五○본중 一본의Naver Orange이고 나머지四八본이 夏橘이었음은 기억할 에피소드로서 너무나지나친 것으로 당하는 농민은 어디에다 호소를 하였으면 좋은지 다만 무력함을 자인할 뿐이다。

그러므로 어느나라 어느사회 어느시대에나 묘목이품종관계는 육묘업자의 양심에 호소하게 되는것이다。그러나 一九六八年도부터는 국내수요량을 도내산으로 충당한다는 도당국의 현명한 방침이 밝혀졌고이러기 위해서 일차적으로도내육묘업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모수의 보유외 품종의 정화성을 심사규제하기에 이르렀던 것인데 지난 六月당시 도농무 주무과장과 계원 그리고 감귤업계 권위자등 五名의 심사위원으로(필자도 심사위원의한사람)일차 모수 심사를하였던 것이다。 도의 이러한방침에 만사지탄의 감이 없지않으나 지당하고 현명한 도의 방침이기에 적극협조한다는 내심에서 도내 70여곳을 일일이 돌아보았으나 아직 감귤을 재배하는 농민이 품종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은되어 있으면서도 믿을 수있는 품종을 보유치 않고있는것이 안타가운일이었다。앞으로 2차심사를 통하여 모수를 지정하고 육묘의기업화에 도정은 노력하여주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導入品種의 選擇栽培

품종개량의 가장 가까운첩경은 다른 지방 또는 외국으로부터의 우수품종을도입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遺傳質을 새로운 育種所在로서 이용하거나 직접 재배하게 되는것으로 현재 제주도의 감귤품종은 잡감류에서 몇몇잔존표종을 제외하고는 전부 외국으로 직접 도입 실세재배하고 있으며 온주밀감의 품종 수만 하여도 二十여 품종이 제주도에서재배되고 있는 것이다。과연 이 二○여품종의 온주밀감이 제주도의 풍토에 알맞느냐는 것은 다시 한번생각의 기회가 있어야 되겠고 만일 적합한 품종이되지 못한 것이 도입이 되어 일반 농가에 재배되고 있다면 이의 직접적 손실은 농민만이 겪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품종의 도입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것은이지방 풍토에 알맞는 것을 택하여야 할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이 지방 풍토에 알맞는품종의 도입은 그리 쉬운것이 아니며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 어느개인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연구기관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우리 제주도인 경우 감귤을 전담연구하는 시험장의 설립이 시급한 문제요 백년대계를 위하여 꼭 있어야만 될것으로 생각이 된다。이웃일본에서도 감귤 시험장이縣立으로 各縣마다 있는 형편이다。이러한 기관은 먼저 이 지방 적응 품종을 선정하기 위하여 타지방타국에서 품종을 도입 적응시험을 통하여 가장 알맞는 품종을 선정 지방장려품종으로 지정하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인 것이다。현재 제주도에서 도입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전부 일본에서 도입되었고 이의적응여부는커녕 서적을 參하여 그특성이 우수하다고 하여 도입되었을 뿐 그것이 결코 제주도에서 반드시 우수할수는 없는 것으로 먼저 도입품종은 연구기관을 통하여 이지방에서의 적응성 균일성 경제성 장래의 이용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우수하다고 인정이 될때 일반농민에게 보급되어야 하는것이 일반절차이나 우리네들은 반대로 도입되는 새로운품종이 일반농가가 앞서 직접 일반재배를 하고있는 실정으로 이의과오를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것이다。

2. 地方 變種의 활용

감귤은 單爲結果法(Parthenocarpy)인것이 대부 분으로 교잡에 의하여 새로운 품종의 작출 내지는개량은 그리 많지않고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타작물과 특이한 점으로、이웃 일본에서도 감귤의 품종 성립 내지는 개량과정은 그 九○% 이상이 突然變異(mutation)현상을이용히고 있는 것이다。

〈계속〉

全道 中高 一般 雄辯大會 開崔公告

〈主題 人權옹호 精神抑揚〉

찬란한 역사를 창조하고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강철같은 굳은 마음과 화산과 같은 뜨거운 정열로서 민족중흥에 앞장설 전도의 기수들로 하여금、본학회에서는 인권옹호주간을 맞이하여 건설적이고 보다 효과있게 우리의 기본인권을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코저 다음과 같이 全道 中高 一般雄辯大會를 개최하는 바입니다。

一、주 제:인권옹호
二、일 시:一九六八年 十二月 七日 一○時
三、장 소:제주시민회관
四、내 용:인간의 기본인권을 보장키 위한 전설적인 방안
五、시 간:일반부 八분、고등부 七분、중등부 六분
六、원고제출처:本大學 도서실內 인권옹호 전도 웅변대회 준비위원회
七、마 감:一九六八年 十二月 三日한
八、원고합격자발표:一九六八年 十二月 四日(개별통지함)
九、제출서류:가、사용원고 一통(二百자 원고지를 사용할것)
나、학교장추천서 一통(자세한 내용은 本學會로 문의바람。)

主崔:濟州大學法學會
主管:濟州地方檢察廳
後援:濟州道敎育委員會
濟州地方法院
濟州경찰서
濟州大學同窓會
濟州大學法學會同門會
濟州新聞社、濟南新聞社
濟州放送局、南洋放送
濟大新報社

教授論壇

濟州島 巫歌의 概念

무속의례에서 부르는 노래

言語的·行動的 要素로 構成
司祭·呪醫·占者로서의 職能

近來 巫俗의 學術的 價値가 인식되면서부터 <巫俗> <巫歌> <본풀이>등 用語가 많이 범람하여졌다. 그런데 개중에는 巫俗에 식견

(俗) 教授 容駿

巫歌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巫歌란 무당이 巫俗儀禮에서 부르는 노래를 뜻한다. 무당이란 韓國의, Shamanism的 在來宗敎儀禮에서 司祭로서의 職能, 呪醫로서의 職能, 占者로서의 職能등을 주로 하는 專門的 職能者를 通稱함이니, 巫歌속엔 그들이 그들의 職能을 遂行하기 위하여 부르는 모든 노래가 전부 포함된다. 〈本文에서〉

"언제 어디서 무슨 연유로 기원코자하니 무슨 신은 下降하옵소서"라는 內容으로 巫歌는 始作되어진다.

<歌>란 무엇인가? <歌>란 곡조를 붙이어부르는, 情感을 나타낸 소리、말 또는 글이다。 書經의 舞典에도 보면 詩는 뜻을 말하고(言志) 歌는 말을 길게 한 것(永言)이라 說明하고 있다。 이말은 <歌>에있어서曲 [illegible]

∨라 할 수 있는 唱法外에 純粋會話調의 辭說이나 그 辭說에 약간의 운율을 붙이 朗誦調에 것을 發見하게된다。 이 때에 우리는 이런 것까지 <巫歌>라는 개념속에 內包시킬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갖게 된다。

설은 모두가 다 이와같은 <永言>的인 唱法으로만 發聲되지 않은 점을 생각할때 巫歌라는 用語가 반드시 適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게된다。

濟州島의 巫歌의 경우 그 唱法을 내나름대로 分類한다면 네가지 종류를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장고나 북의 반주와 춤이 수반되고 樂巫들의 後歛唱이 따르는 主唱으로 그 歌詞의 韻律이 整然한 것이다。 이를 <순수가요>라는 이름으로 우선 불러 둔다。

둘째는 북이나 장고의 반주에 맞추어 坐唱하는 것으로 樂巫의 復唱은 따르나 춤이 수반되지않고 歌詞의 韻律이 어느 정도 整然되어 있는 것을 <반가요>라고 일러둔다。

셋째는 무속의례 집행에 있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있는 것인데、樂器의 반주나 춤이 없이 巫覡이 主唱하는것이다。 그 가사는 韻律이 一定치못하여 바로 散文인데、그것을 音의 高低長短을 걸들여 그때 그때 辭說의 內容과 音節數의 構造에 따라 그 가락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歌>라 하기보다는 <韻律的辭說>이다 함이 적당한 것이다。

네째는 巫覡들 사이나 巫覡과 顧客間에 교환되는 <純粹對話>다。 이것은 主로 劇的 형식의 의례에서 非律動的인 劇的 動作과 더불어 이야기되는것이다。

<濟州島무가>라 하면 이상 말한바 <純粹對話調>의 것에서 부터 <純粹가謠調>에것까지를 전부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歌>라고 通稱하는것이 좀 不適合한 感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써온 用語요、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쓰는 데는 어차피 이상의 모든 형식에것을 全部 일컫는 말로 써야 하는 것이다。

Ⅱ

무가는 무속의례의 一要素다。 무속의례는 무속신앙의 行爲的表出인데、이 의례는 言語的 要素(歌、樂)와 行動的 要素(舞蹈·演劇)로 構成되어 있다。 이 의례의 언어적 要素全体가 무가다。

따라서 무가는 그 의례행위 및 祭次內容에 따라 그 가詞도 規定지워지게 마련이다。

濟州島의 무속의례는 그 기본의례형식이 ①請神 ②饗宴및 祈願 ③逐邪 ④送神의 過程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基本형식은 大規模의 의례(큰굿)에나 小規模의 기원의례(비념)에나 擴大냐 縮少나 하는 構成의 차이가 있을뿐이지 共通으로 適用되는 형식이다。

이 기본형식은 몇개의 方向으로 發展되었으니、언어위주로 發展된 것이 現在의 <본풀이>요、舞蹈爲主로 發展된것이 <맞이>굿이며、演劇爲主로 發展한 것이 現在의 <놀이>다。

<본풀이>란 <神의 本原과 來歷을 解釋說明한다>는 뜻으로、護神의 神話를 唱하고 神에게 所願을 祈求하는 儀禮의 名稱임과 同時에 그 神話들 뜻하는 말로 무속社會에서 쓰이고 있다。 무신의 神話<본풀이>에는 <천지왕본풀이><초공본풀이><이공본풀이><십공본풀이><차사본풀이><세경본풀이><문전본풀이><칠성본풀이><지장본풀이>등 一般神의 神話와 各 村落을 守護해 주는 堂神의 본풀이등 많이있다。

韓國의 巫歌중 濟州島만큼 무속의 神話 곧 본풀이가 整然하게 많이 殘存해 있는곳은 없다。 그래서 濟州島무가라하면 바로 <본풀이>를 연상하리만큼 본풀이는 濟州島 무가中에 特色的인 것이다。

<맞이>굿은 基本儀禮形式에 神堂의 下降路를 치워닦아 神을 맞이하여 祈願하는 儀禮로 <초공맞이><이공맞이><시왕맞이><불도맞이><일월맞이>등이있다。 이 儀禮는 舞蹈爲主로 이루어져 있는데 基本儀禮形式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놀이>는 祈願의 形式을 劇形式으로 展開하며 類感呪術的 効果를 노리는 것인데 <세경놀이><몰놀이><전상놀이>등이 있다。

小規模의 의례(작은굿)는 위에서 말한 基本의례形式으로만 하지만、三、四日이 要하는 大規模의 의례(큰굿)에는 이들 各의례形式이 獨立祭次로 행해지며 그祭次와 祭次間에 神을 즐겁게 놀리는 娛神의 의례(석살림)가 행해진다。

巫歌를 가사에서는 文學이요 唱法에서는 音樂이요
行動的 要素에서 보면 綜合藝術体인 것이다

그러니 濟州島 무가라하면 이 基本形式의 의례및 <본풀이> <맞이> <놀이>등 모두 形式의 巫的 行事에서 巫覡이 發聲하는 言語的 要素를 뜻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濟州島의 무가는 그 內容으로 보면 ①請神가 ②饗宴및祈願가 ③叙事무가(神話—본풀이) ④神意問議및傳達가 ⑤逐鬼가 ⑥娛神가 ⑦送神가등으로 크게 나눌수있다。

①請神가는 神을 請해 들이는 祭次 <초감제><초신맞이><상계>등 모든의례의 辭說唱이 이에해당한다。 그 內容은 <언제 어디서 무슨 연유로 기원코자하니 무슨神은 下降하고 자리에 坐定하소서>하는內容이다。 <언제 어디서>를 說明하기 위해 宇宙까지 擴大시켜 解說을 하여 내려오게 되어 있어、여기에 開벽神話가 이루어져 唱되고 있다。

②饗宴및 祈願가는 차려올린 祭物을 잡수도록하고 所願을 祈求하는 過程의 唱으로 <추물공연><비념>등이 여기에 드는데 모두 言語들이 세련되어있고 비유가 뛰어난 文章으로 이루어져있다。

③叙事무가—神話는 神의 出生에서부터 神으로서의 坐定까지의 來歷을 解說하는 모든 <본풀이>인데、이는 祈願의 根據와 祭儀의 正當性을 主證하기 위하여 唱하는 것이다。

④神意問議및 傳達가는 神의 意志를 探知하기 위하여 巫占을 칠때의 辭說과 그 探知된 神意를 禱者에게 傳達하는 辭說(산받아 분부사뢸)을 말힌다。

⑤逐鬼가는 邪또는 雜鬼를 좇는 呪的 辭說唱으로 <새도림、푸다시>등 一種의 呪歌다。

⑥娛神가는 神을 즐겁게하기위해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것으로 그곡조가 가장 整然한 홍겨운 노래인데、<서우젯소리> 〈덕담〉〈담불〉등이 있다。

⑦送神가는 神을 돌려보내는 辭說唱으로서 이른바 <도진>이다。

Ⅲ

以上 濟州島의 무가를 走馬看山格으로 살펴가며 그 윤곽을 보아왔다。

濟州島의 무가란 濟州도의 巫覡이 무俗의례를 執行할때에 發聲하는 언어的要素 全体를 일컫는 것이요、그것을 內容으로 보면 請神、饗宴및 祈願、신화、神意問議와 傳達、逐鬼 娛신 送신등 의례執行에 있어서의 모든 歌詞 乃至 辭說이었으며 그것을 형식면에서 보면 純粹가요조、반가요조、韻律的辭說調、純粹對話調등 여러가지 형식엣 것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그 辭說面에서 보면 文學分野의 것이요、그창법에서 보면 音樂의 分野의 것이며 가사乃至唱法에 行動的要素인 舞踊、劇的行爲등을 겹쳐 보면 宗教와 藝術이 分化되지 않은 綜合藝術体인 것이다。

圖書館提供 【12】

鄕土文獻目錄(主要新聞記事包含) 續報 No.12

一。定期刊行物

△제주도 35號、濟州道 1968. 9月刊。 280p. 21cm

△統計年報 1968. 9月刊。 195p. 21cm

△제주시보 제주시공보실(33號) 1968. 9. 30.

三。新聞記事

△이달末께 就航(濟州~福岡간航路) 서울신문 8.7

△臨여사가선물 建設團員들에 〃 8.13

△市民홀개설 濟州市 25일부터 〃 8.15

△濟州道경찰국장에 金在淵씨를 任命 8.23

△蘇의체코占領규탄(三千市民 학생궐기) 〃 8.26

△海岸경비강화 全道경국장첫會見 〃 8.30

郷土文献目錄

△任務는 接線…잡힐줄 몰랐다는 제주공비記者회견 조선일보 8.25

△부災적시는 사랑의 海上給水 作戰(濟州 서木浦로) 조선 8.3

△濟州비행장 공항昇格(出入國港으로) 조선 8.7

△離農民 濟州道에몰 8. 8 려(하루30명씩) 〃 8.14

△模範建設團員 241名 退團귀향 〃 8.15

△濟州奬學會(日本서 設立) 동아일보 8.28

△御乘生水源工事로 牧場에 엉뚱한被害 組合員는 當局에補償을 陳情 경향신문 8.1

△한漁協에서 二部落 뽑아 모범漁村에 重点支원 경향신문 8.3

△濟州道開發위한 在日교포 財產搬入難關 경향 8.7

△濟州市 都市계획말썽 私有財産침해 舊市거주민들반발 경향

△濟三海區獨立을(六萬濟州漁民들陳情) 경향 8.5

△濟州市街路명칭改定 오늘 光復節期해公表 경향 8.15

△和順港開發계획 大規模의 貿易港으로 경향 8.21

△모두北傀장교(濟州서 生捕한 丁共匪의 身元) 〃 8.22

△道民七%象皮病환자 血清檢查結果밝혀 한국일보 8.1

△觀光客급증 月八千余名놀려 新亞日報 8.9

▲建設團員실태조사 韓國人權協五名 어승생에 〃 8.13

▲濟州商業放送 HLAJ 9月14日開局 〃 8.27

허용량의 3~9배나간 이水道 우물에 細菌 中央日報 8.2

▲牧野開良 中山間개발 사업규모 내목축소 〃 8.3

▲교포寄贈으로 감귤苗木 확보 不足量五萬그루 〃 8.6

▲教育誠金 총五億七千萬원 在日교포들七年동안 寄贈 〃 8.9

▲濟州道奮미여 다시마에 접착제 알진산 大量함유 〃 8.28

▲어린이 발육부전体位 전국평균 未達(千九百余名은 正常成長못하고) 〃 8.31

▲濟州空港확장계획確定 五年間六億원投入 대한일보 8.3

▲濟州港入口에 암초三個 船舶出入港놀위협 〃 8.12

▲감귤主產地 계획마련 四年동안-億投入 戶당 19萬원 收益에상 大韓日報 8.26

新着圖書目錄 〈도서관 제공〉

Martin 韓英大辭典 民衆書館
李家源 연巖小說硏究 乙酉文化社
古典國譯會 大典會通 高大出판部
李家源 中國文學思潮史 一潮閣
金海東 調查方法論講義 三中堂
Lubbock 小說技術論 一潮閣
Werren 文學의理論 新丘文化社
李丙수 社詩언解抄 集賢社
具滋均 國文學論고 博英社
李相寶 朴趾溪硏究 一志社
李萬甲 社會調查方法論 民潮社
同研究會 農村社會學 民潮社
趙演鉉 現代韓國作家論 靑雲출판
河有祥 씨나리오入門 成文閣
趙演鉉 文章教範 正音社
李人植 치악산 〃
李瓊善 壬辰錄 朴氏傳 〃
金萬重 九雲夢 謝氏南征記 〃
張志暎 洪吉童傳·沈淸傳 〃
黃仁旭 林花鄭延 乙酉文化
金光洲 玉樓夢 〃
鄭漢淑 옹고집전 〃
朴용구 韓國古代小說全集一~五 〃
〃 韓國古代小說全集一~一五 〃
〃 韓國古代小說全集一六~二〇 〃
編輯委 月刊濟州(創刊號) 月刊濟州社
金曾漢 法學通論 法文社
李忠烈外 교양문화사 〃
崔常壽 海西假面劇硏究 大成文化社
震檀學會 震檀學報(二九·三〇號) 진단학회
崔常壽 韓國과越南과의關係 開明文化
이영도 사랑했으므로 행복하였네라 中央출판
Francis The English Language 影印판

제주도 민요해설 ⑤

萬里長城을 비유로 한

굳게 맺어진 夫婦愛의 노래

만리장성 잣 안 둘은때
님이 가나 내가나 혼덜
만리장성 잣 둘은 후젠
님이 간덜 내 어디가라
내가 간덜 님 어디가랴

※잣…城

(萬里長城 잣 쌓기 前에는 임이 가든 내가 가든 間에 萬里長城 잣 둘러쌓은 뒤엔 님이간들 내 어디가며 내가 간들 임이어디가랴)

굳게 맺어진 夫婦愛의노래。 秦나라 始皇이, 六國을 통일하고 天下를 한손에 넣게되자 北胡의 침입을 저어하여 春秋時代부터 있었던 城壁을 利用하여 萬里長城을 쌓아 놓았다。 阿房宮에서 不老不死의 꿈을 꾸며 호화찬란한 生涯를 누렸던 이 萬里長城! 하루아침에 이루어진것이 아니고 워낙 큰 役事라 壯丁들을 徵發하면 늙어숙는날까지 賦役에 종사하였음에 민중에게는 難中難이며 大事中 大事라 아니할수없는 고역이었다。 이렇게 天下壯丁들의 일이라 쌓아놓은 잣(城)이니만큼 어찌 붕괴될염려인들 있으랴。 金城鉄壁인 만큼무너질이없다。 이제 이처럼 堅固한 萬里長城은 하나의 비유로 맹세한다 결혼한다등의 용어로 형용사가 되어지고있다。 하룻밤을 쌓아도 萬里長城을쌓는다는말은 서로 하룻밤을 자고도 굳게 言約을 했다는 過程을 뜻하는 의미인지도 모른다。

이 민요 역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있는 노래이다。 結婚하여 夫婦가 되어 살기 전에는 님이가든 내가가든 自由自在로 어디든지갈수가 있었겠지만 이제 잣(城)을 둘러쌓아놓아 幸福한 가정 부부생활을 하는 이상은 서로 떨어질수 없다는 것이다。

님이 나를 버리고 딴데로 간다해도 내마저 우리님을 떠나 딴데로 갈일이 만무하며 내가님을 버리고 딴데로 간다기로 님도나를 버리고 딴대로 갈이가 만무 할것인가。 이같이 부부애는 만리장성과같은 굳게 맺어진 사이인것이 아니냐。

〈洪貞杓著 「濟州도民謠解說」에서〉

第一回 全國大學生 적설기 한라산 등반대회 개최공고

秦나라 始皇帝가 不老草를 캐러 보내었다는 瀛洲의 神山漢拏는 耽羅의 象徵이며 祖國南端을 守護하는 외연한 氣像입니다·

海拔 1950m의 韓國最高峰인 한라산은 山勢가 우람찰뿐만 아니라 銀河를 어루만지는 山項·白鹿潭의 雪花는 瀛洲十景中의 으뜸이요·東洋의 「알프스」라 하여 山岳人들의 憧憬의 對象이 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저희 大學에서는 날로 激增하는 山岳人들의 뜻에 呼應할 뿐만 아니라 5,16以後 눈부신 發展을 거듭해온 이 고장의 참모습을 곁들여서 소개하여 「躍進濟州」의 이미지를 一新시키고져 이 大會를 마련해 보았읍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大學에 베풀어 주신 平素의 厚意에 感謝드리오며 이 大會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倍前의 聲援과 鞭撻을 바라옵니다·

濟州大學總學生會長 韓 康 洙

行 事 概 要

1. 大會場所 : 한라산 2. 大會期間 : 一九六九年一月十一日—十七日까지(七日間)
3. 參加範圍 : 全國大學校산岳會 男·女大學生 一個팀 六名 〔指導教授포함하여 六名도 可함〕
4. 申請場所 : 濟州大學登攀大會 本部任員會
5. 申請期間 : 一九六八年十二月一日부터十二月十五日까지(十五日間)
6. 參加者集合 : 一九六九年一月十一日 10時 觀德亭
7. 參加費 : 一人當 二〇〇원
8. 裝備및食糧 : 가· 參加팀의 標識旗 나· 六泊七日에 所要되는 食糧
9. 施賞式 : 一九六九年一月十七日 觀德亭
10 閉會式 : 一九六九年一月十七日 觀德亭
11 其 他 : 詳細한 것은 濟州大學登攀大會 本部任員會에 問議할事

※ 가· 參加者全員에 對하여 大會가 끝난후 승선時까지 一日에 限한 主食을 提供함
나· 參加者 全員에 對하여 記念뺏지와 페난트를 贈呈함

主催· 濟 州 大 學
主管· 濟州大學 總學生會
後援· 文教部· 中央日報社· 大韓산악聯盟· 濟州道·濟州산악會· 濟州地域司令部· 濟州市· 濟州放送局·南洋放送局 濟州新聞社· 濟南新聞社

海山

國文科 一年 高時洪

山을 본다.
山위에 山을……
바다를 본다.
山밑둥을 물고 느러진,
水平線 너머
大洋은……
山을 본다.
유난히 큰
아가씨의 목줄기를
쭉—
감싼 조용의 뜨거움으로,
누렇게 멍든
山을……
바다를 본다.
푸른 하늘의 이마가
맞닿는
푸름과 푸르름의
입맞춤을……
山을 본다.
내 발끝까지
뻗어내린 신비한 허리를……
바다를 본다.
나의 서투른
등탕걸음으로
어쩔수 없는……
八方으로 들어와 닫는
山과 바다를 본다.
山風
海風의 맛을
실바람 부는
가을의 푸른지붕 아래
서서,
살포시 내려 앉는
꿈의 껍질과 같이
그 숨결의 破動을 돌어본다.

訂 正

연재단편소설 지난號의 것은 이번 ②回와 엇갈렸기 訂正함

追憶

金在浩

바람이 記憶처럼 되 몇번이고 잇 바뀐나
살아 날때면 의 地域。
委節은 全部를 털어 또 남겨야할 유언이
버린 한마리의 산 비 무엇일까。
들기가 되어 이 불타는 戰場에서
나의 時計는 가끔몇
어버리는 즐거움을 때 다만 詩를 읽고 싶
을때 기다려지는 女人
의 짜증, 묶이지는 黃
운다。
오랜 시간이 大川위 婚의 表情이었。
에 그려지던 날
한 오리기의 微笑로 저넓은 타다 남우情
世上을 배울수가 있다 熱의 반수로 다시 計
면 얼마나 싱거운 게 뻬을 만는다。
임이랴。
오직 엷게만 이어지 나의 地域은 이렇게
는 潮伴의 물결을 殉 눈의 委節인 것이다。
數者처럼 透觀한다。
늘
鄕重한 목소리로 나
에게 타일렀으나 나는
失望해 버린채로 그忠
告를 背反한다。
委節만이 가지는 莊
嚴과 崇高한 大地로서
나의記憶을 키우는 것

<十月 二十二日>

<商科一年>

추계 등반대회를 갔다와서 ①

漢拏의 이미지

(加工科一年) 고정삼

山속에서 느끼는 人間의 참

어머니 품처럼 포근해

한라靈峯의 眞義는 무엇인가

密語를싸안은그날의少女像

◇ 山의 情緖一。 숱한 沈黙으로 모든 것은 윤결 되어진다。 ◇
◇ 山友여 여기 기인 숲에서 이루어지는 ◇
◇ 情이 있으 ,그것을 山情이라 할까? ◇

파아란 가을하늘속에 풍만한 結實을 싸안고 호젓한 山속의 나뭇잎을 밟고 싶었다。 오래전부터 바래운、잔뜩 期待感에 싸안고 28일 登山의 대열속에 끼었다。 빗방울이래도 한바탕 던지고 갈 듯한 침울한 날씨는 不安속에 얘기되는일이 始作이라고 여겉가도 모르겠으나 그런데로 몇몇 친구들이 전송을 받으며 40여명이 차 두대에 분승 성판악까지 갔다。 싸늘한 바람이 꽃등을 시리우고 손은 차다。 무척 앞에서 겨우 시성거리고 있나보다。 가엾게 눈어선 나무에도 벌레먹고 퇴색한 나뭇잎은 쭈글어 붙어있으니 조금색 느끼어보는 委節의 感覺이다。

金納日教授가 指揮하기로 하고 六個의 조로 나뉘었다。大部分이 一、二學年이었고 나는 친구들과 같이 一조에 속했다。 날씨가 싸늘히 손등을 시리우고 옷깃을 한층 여미게하지만 처음으로 내딛는 발자욱들은 힘이 있어 보인다。 一第가 되어 오르기 始作한 대열은 숲으로 뒤덮힌 낙엽진자그만 길을 조심스레 밟는다。 노랑다섯해 갈색으로 퇴색되버렸고 빨갛게 단풍진 나뭇잎을

마나 찬열함을 드러내었을까? 생각하니 時間에 따라 恒時變하는 自然속에 선 나도 역시 초라한게 아니겠는가? 철바타 變하는 山과의 對話는 더욱은밀해 질게다。

또 숲을 끼고 조금 올라가 표고판에 도착하여 하루의 여정을 풀기로 했다。 사라악과 보적악의 중간지점이며 時間은 아

나무열매를 찾아 숲속을거니는 女大生엔 차라리 순결한눈는 농자의 신열속에 密話를 싸안는 옛날 少女像이다。 낙엽을 주워 모으고 싶다。

긴 나무가지에 항구들을 걸치고 나뭇가지 주워모와 불을 매니 연기가 눈을 가리운다。 그러나 그속에 오붓이 모여앉은 모습들이 다정스럽다。 여

그런대로의 風致다。 한때의문성한 푸르름이 이제 외로이는 날려 썩어가고 새 生命의 잉태가 계속될것이다。 문득 아우레니우스의 말이 떠올랐다。 인간의 부귀도 어제는 영화롭고 오늘은 떨어져 흩날리나니 늘 自然속에 머물렀던 그의 思想이 새삼 느끼우는 것이다。 초라히 썩어가는 古木들과 제멋대로 내뻗는 나무 뿌리에채이며 한시간 남짓 올라가니 숲은 잠시 걷히우고 관목이 즐비한 벌판진달래 밭이다。 그 어느 봄날 화려한 의상에 얼

직 일렸으나 산속의 날씨라몹씨도 싸늘하다。 아침에 흐렸던 날씨는 맑게 개었고 앞으로 계속 맑을것을 기원해 본다。 내일 정상에 오른다는 기대감을 싸안고 남는 時間에 조용히 숲속을 거닐었다。 깊은 심호흡으로 가을의 맑은 공기를 들여 마시며 소복히 쌓인 낙엽을 밟는다。 빨갛게 타오르는 情熱을 간직한 나무들、 갈색으로 혹은 검붉게 무늬진 잎새 너머로 추위에 움추려든 마른잎 앙상한 標像들이 對照的이다。

러군데의 밥짓기에 한창이고 끝내는 쪽도있다。 호젓한 산속에서 한때는 참으로 浪慢的이다。 피로함도 권태스러움도 잊어버리고 모닥불 피워놓고 밤을 수놓는다。

홍겨운 노래속에 fork dance랑 둘러앉아 번호맞추기랑 밤이 깊도록 피로를 모른다。 타오르는 나무둥치모양 완전히 산화될수있으면 좋겠다。

새벽녘의 날씨는 몹씨 찼다。 두툼한 겨울옷을 몽땅 입었으나 피부로 스며드는 차거운 한기는 막을수 없어 어느때보다 일찍 일어난셈이다。 간단히 조반을 마치고 九時가 넘어 出發했다。 맑은 날씨다。 따사로운 햇별을 두볼에 느끼우며 길은 어제보다 더욱 오르막길이었으나 몸은 훨씬 가벼워 보였다。

쑥반을 지나 진달래밭 구상나무밭을 차례로 지났다。 한참 올라가 뒤를 돌아다 보았을때 아름다움、 온통 꽃이 핀듯 찬연한 모습이다。 봄날 벚꽃이 만발한 모습일까? 아니 그보다 더욱 순결하고 아름다마은 한층 더한다。 나뭇가지마다 얼어붙은 눈、 漢拏山의 雪景은 여기서부터 계속되는가 보다。 그 아늑한 모습은 질떡질떡한 길을 걸어 올라온 보람이며 많은 등산객들을 유혹하고도 남을 모습이다。

구상나무밭을 뒤로 두고 1,1 올라가니 시레미밭이다。 여기가 백록담 바로밑이오、 단숨에 올라갈수있는 거리다。 지난 여름엔 백록담에서 입의 시도록 따먹던 시레미 생각이 떠올라 들쳐보았으나 줄기만 무성할뿐이다。

얼마 남지않은 거리를 올라가면 정상이라 생각하니 더욱 힘이 나는 듯싶어 쉬지않고 부지런히 올라갔다。 드디어 12時 바위위에 올라서 밑을 굽어보다。

한라산은 어머니품이요。 그 품속에 안겨진 아늑한 마을과 벌판들 한폭의 풍경화다。 부연안개 너머로 보이는 자그만 섬들。 苦된 解産에서 남겨진 옥동자 들이다。 저 사그만 마을에서 낳고자라 또 높은 곳에서 굽어보는 모습은 孔子의 心情일까? 魯山에 올라 天下가 넓음을 느끼었던 것처럼… 視野의 限界는 어딜보나 水平線으로 막혀 버린다 차라리 막혀버린 通路요、 안으로만 옹축되어 들어가는 모습이다。 어머니품같은 따스함을 남겨놓고있지만…… 밖에서 안으로 눈을 돌렸을때 모습도 장관이다。 얼어붙은 눈송이들의 調和、 나비가 찾아수는 따스한 온기있는 꽃이 아니라 산이 좋아 찾아수는 人間만이 만끽하는 싸늘하고도 무한한 自然이 아름다운 꽃이 이루어진 結晶들。 한가지 調和로 겪어 간직하고 싶은 심정이다。 통 Contrast된 自然의 아름다운 모습에 멍하니 서있는다。 그에 人間은 얼마나 초라한 것이랴。

一時三十分 뒤떨어졌던 一行도 모두 도착하여 영실을 向해 出發했다。 정상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은 눈이 쌓여 극히 위험했다。 자칫하다간 절벽에서 굴어떨어질지 모를 긴장된 순간들이 계속되었다。 절벽으로 막혀 잠시 지체하고 있었는데 옆길을 올라가던 S군이 10여게 굴러 떨어지자 더욱 조심스레 한사람씩 내리기 始作했다。

뒤망스 ①

大學과 大學生

먼저、 우리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대학의 목적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법 시행령 제백팔조에는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짧지 않은 이 귀절에서 우리는 교육과 연구와 지도자 양성의 세가지 사명을 얼른 머리에 떠올린다。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그 세가지 목적 중에서 어느 것을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인텔리켄챠와 엘리뜨가 태연히 혼용되고 있는 사회라면 아마 지도자가 가장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겐 지도자를 양성할만한 대학이 없다。 진실한 대학 지망자들은 한결같이 목적의 타산에만 신경을 쓴다。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도 그걸 사회는 언제나 거부해 왔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은 취직시험 준비소로 타락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지도자가 아니다。 심오한 이론과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는것이 우리의 급선무다。 12C에 세계 최초로 발족된 이태리의 볼로니아(Bologna)대학은 순수한 학문의 연구를 원하는 유롭 각지 법률학생들의 조합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관찰해 볼수 있는 고려 성종十一년에 세워진 국자감(國子監)은 표면적으로 관리 후보자의 배출을 목적으로 했다。

자연스러운 곳에 지향이 없는 실재(實在) 무슨 가 있을수 있겠는가。 우리도 배워야 한다。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까지도 불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스튜던트·파워도 좋고 담배 피우고 술마시는 낭만도 좋다。 모든 것이 한계점만 넘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 대학은 수신제가(修身齊家)나 기계적 젠틀맨만으로 성립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자감이 (후에 성균관으로 개칭됨)가 졌던 관리 후보자의 양성은 우리를 질식시키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학생들이 압박되는 분위기로부터 창조하는 분위기로 몸의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한다。 적어도 우리는 최소의 지적 판단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本社K記者)

연재단편소설 ②

격류(激流)

현철 作
貞娥 畵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이 직선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누가 방해를 한단 말이야。」

이 원시적인 표현、 이 격정적인 행동은 나에게 멜로·드라마의 어떤 장면을 생각하게 했다。 이별、 [illegible] 정신없이 붙잡은 연인의 [illegible]。 긴게 포옹하는 연인들의 감성은 어떤 종류의 [illegible]。 [illegible] 소리、 정열적인 행동으로 아버지는 나의 뺨을 문지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가 지금은 침묵과 우울함으로 나날을 보내게 된 것이다。 이유를 알 필요도없이、 아버지의 괴로움은 즉시 나의 괴로움으로 직결된다。 아버지의 기쁨은 나의 가슴에 깊숙히 파고 들어와서는 한바탕 아름다운 모양의 소용돌이를 남긴다。

회사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노타이·셔츠에 파자마를 입고 소파에 앉았다。 나는 약간 [illegible] 가슴을 [illegible] 입을 열었다。

「아버지、 안색이 좋지않으시군요。」

「응、 너에겐 그렇게 보이니? 회사 동료들은 더 좋아졌다고 하던데。」

사람들이란 기막히게 역설적인 [illegible] 진실인양 말할 때가 [illegible] 겁니다。 아버지는 아 [illegible]

[illegible] 의 무릎 위로 놓여졌다。

「자、 피워라。」

내가 우물쭈물하자 아버지의 얼굴은 엄숙해지기까지 했다。 그리고는 말을 계속했다。

「아버지가 앞에 있기 때문에 담배 못 피우는 도덕을 난 좀처럼 인정하지 않아。 낡고 퇴색한 습관은 우리에게 아무 이익도 안되는 건데。 도덕이나 윤리 따위는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 해야 한다는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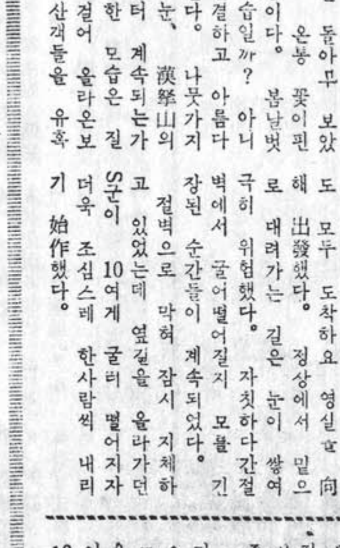
나는 반박이、 이 분위기에 부적당한 방법일 거라고 판단했다。 아버지는 더 계속했다。

「가령、 이런 걸 생각해봐 어른 앞에서 술마실때、 그 어른의 위엄은 얼마만큼 기분을 위축시키는가 말이다。 오늘같은 시대에서 자기 이외를 계산한다는 건 손해보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야。 그렇다고 해서 손해보는 도덕을 경멸하라는 말은 아냐。 요는、 어느 것이 실제적인 생활에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지。」

뿌옇게 된 이론이 아버지와 나의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 아버지는 커다란 목소리를 내서 식모 아이를 부른다。

「언제 마시던 것 있지? 그걸 가져 와。」

이 정도로 이야기 해주면 척 알아 먹는다。 술상을 차려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나의 가슴은 약간 울렁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격류된 감정이 객관적인 안목을 희미하게 할 차례가 아닌가。 존경한다는 것과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 송두리채 전락되고만 증거이다。 스카치、 샴페인、 막걸리…。 아버지는 스스로 서구식 생활 풍조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때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사실 그것은 현명이라기 보다는 분별이다。 정확한 분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관。



담배에 불을 붙인 나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아버지의 안색은 심드렁해져 있다。 후회한다는 것일까。 아상태、 이 대담한 윤리의 파괴를。

「들자……。 어서」

「예。」

「이상하냐?」

「뭐가요?」

최초의 용기、 허용된 용기를 가지고 나는 아버지의 술잔과 서로 바꾸면서 술을 마셨다。 이상해 온다。 점점 이상해 온다。 창밖의 어두움은 더욱 더 짙어갔다。 나는 꺼먼 장막의 정체를 응시했다。

(國文科·二)

현대정신의 프론티어!
世界文學의 향연!
새로운 時代의 知性과
人間性의 벅찬 隊列

現代文學全集

새로운 世代의 고민과 絶望에 對答해 주는 現代
知性들의 새로운 文學…… 그 장엄한 심포니!

■ 第二回配本(七~十二)

7 파리大王…고울딩 / 그물을헤치고…머어독

8 존머어킨즈…앙리토마 / 하늘의뿌리…로맹가리

9 대들보를올려라…샐린저 / 또하나의나라…볼드윈

10 고양이와생쥐…귄터그라스 / 야곱에대한추측…우베욘존

11 徒勞…마르칸다야 / 빨간루비의노래…미클래

12 自由의저쪽에서…椎名麟三 / 모래의女人…安部公房 / 金閣寺…三島由紀九

<第3,4回配本編輯中>